▌이베로아메리카 제14권 2호 [2012. 12] : 119~145

브라질의 '탄생': 16세기 유럽과 브라질 보고문학에 나타난 이상향*

정 재 민**
(Chung, Jae-Min)

〈Abstract〉

Birth of Brazil: Utopianism in Europe and Brazilian Informative Literature of Sixteenth Century

This paper deals with the study of how the 'birth' of Brazil happened and how the European utopianism was represented in Brazilian Informative Literature of the sixteenth century, that is, the first literary manifestations of Brazil. There were at that time the Renaissance humanism and the scientific development that encouraged dozens of illustrious navigators for new discoveries ultra-seas, like Christopher Columbus who discovered America. Writings such as *Letter to King Manuel* of Pero Vaz de Caminha, had mostly an intention to inform Europeans about climates, indians and possibility to discover gold or silver. Main narrative characteristics were uncertainty and exageration, which ironically helped to attract more discoveries and explorations in the New World. Americo Vespucio's *Mundus Novus* inspired Thomas More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1-A00094).

**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E-mail: jaeminbr@gmail.com

to write *Utopia,* in which the author described through a Portuguese sailor the ideal but unrealizable society. Utopianism regarding the imaginary island of 'Brazi', well known among Europeans since long ago, may have influenced the current name of the country: 'Brazil'. On the other hand, utopianism shown in Brazilian Informative Literature worked as a justification for Europeans to explore and colonize the New World.

[Key Words: Utopianism/ Thomas More/ Vespucio/ Caminha/ Informative Literature]
[주제어: 이상향/ 토마스 모어/ 베스푸치/ 까미냐/ 보고문학]

Ⅰ. 서론

이상향, 즉 유토피아는 문학사에 있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다뤄진 주제였다. 이는 곧 '문학은 꿈'이라는 명제에 다름 아니다. 문학이 인간의 삶이라는 현실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만큼 현실에 대한 비판과 미래의 지향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이런 점에서 당시 유럽인들의 시대상과 정신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모어가 이상의 나라를 꿈꾸던 당시 유럽사회는 해양진출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던 시기였다. 특히 당시 해양발견으로 유럽인들에게 존재가 전해지던 신세계는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양분[1]하고 있던 때였다.

1) 당시 유럽인들의 중요한 해양개척사를 요약하자면, 1488년 바르똘로메우 디아스의 희망봉 발견,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1498년 바스꾸 다 가마의 인도항로

1500년 포르투갈에 의해 발견된 신비와 경이의 땅, 신세계 브라질에 관한 수 많은 정보들은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문학적 소재로 끊이지 않고 형상화되었다. 국내에서는 유토피아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에 브라질문학, 특히 브라질 형성기의 보고문학을 유토피아적 주제와 관련시킨 연구는 전무하다.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필두로 당시 유럽사회 전반에 확산된 유토피즘이 해양확장의 선봉에 선 포르투갈이 지배하던 브라질을 소재로 하는 글들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 지 살펴보는 것은 꿈과 이상이 어떻게 현실로, 또는 현실이 어떻게 꿈과 이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지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브라질 형성기 문학이라고 할 때, 문학사적 시기는 현지 정보를 담은 보고문학이 주를 이루던 16세기, 즉 바로크 문학의 태동 이전으로 간주한다(Bosi 1980, 13-29). 이 시기의 브라질 문학은 브라질이라는 신세계에 관한 정보를 유럽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씌어진 보고문학과 포르투갈 출신 신부들을 중심으로 원주민 선교 목적으로 씌어진 종교문학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여기에서는 보고문학을 중심으로 이상향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6세기 브라질 보고문학을 논의함에 있어 어떤 언어로 씌어져 있는 작품을 브라질 문학으로 해야 할 지 개념 설정이 선행되야 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제국들이 신대륙의 땅을 쟁취하고자 혈안이 되어 브라질을 둘러싼 국경이나 주권문제가 모호한 상태였다. 또한 이 시기 작품들이 라틴어로 저술된 사례가 많다. 이런 점에서 글쓴이의 언어나 국적만을 기준으로 브라질 문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개념 설정상 지나치게

개척, 1500년 까브라우의 브라질 발견 등이 있다. 해양발견의 선봉에 선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새로 발견하는 땅의 소유권과 관련, 교황청의 중재로 1494년 또르데질랴스 조약을 맺고 사실상 세계를 양분하게 된다.

국소적이고 편협한 것인 동시에 당시 글들이 거의 신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구세계 유럽인들에게 알리는 것들이라는 관점에서 포르투갈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로 씌어져 있어도 저자가 브라질을 경험한 경우, 그 경험한 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는 글은 모두 브라질 문학사에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브라질 문학사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 시기의 글들은 예외 없이 유럽인들의 시각과 관점을 나타내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포르투갈 사람이 라틴어 또는 포르투갈어로 쓴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키되 여타 유럽인들이 이 시기에 브라질에 직접 와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기술한 작품들까지도 광의적으로 포함시켜 이상향과 관련한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인에 의한 공식적인 브라질 발견을 알린 까미냐의 〈동 마누엘 왕에게 올리는 상서(上書)〉를 통해 어떻게 신세계 브라질이 유럽인들에게 '탄생'되었지 먼저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브라질의 탄생에 일조한 바 있는 베스푸치의 저서 『신세계』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관련성을 통해 16세기 유럽의 이상향을 알아 본다. 마지막으로 오래전부터 유럽인들에게 지상낙원으로 전승되어오던 '브라질 섬'이 지닌 상징성과 관련시켜 이 시기 브라질 보고문학에서 이상향이라는 제재가 어떤 성격과 특징으로 형상화되어 가면서 브라질이 '재탄생'되었는지 작품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브라질의 탄생: 까미냐의 〈상서〉

무어족을 축출하여 국토를 통일하고 일찍부터 정치적인 안정을 이룬 포르투갈은 당시 부의 상징이던 향료와 금을 찾아 해양개척에 나선다.

포르투갈에 뒤이어 스페인 역시 해양개척을 통한 부의 축적을 우선 과제로 삼고 탐험정신으로 무장한 귀족과 선장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당시 유럽은 인문주의의 사상적 영향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이 움틀거리고 있던 시기였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수 많은 항해가들의 용기를 부추겼다. 해양개척 초기 공통점을 발견하자면 신대륙 발견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불확증성이라고 할 수 있다. 콜럼버스는 그가 처음 발견한 땅을 신대륙이 아닌 서인도라고 믿었고 아메리코 베스푸치는 자신의 배가 닻을 내린 곳이 최초로 발견한 미지의 대륙이라고 잘못 판단했다. 이런 불확실성과 불확증성은 새로운 발견에 대한 욕망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498년 바스꾸 다 가마가 인도항로를 발견하는 쾌거를 올리자 이에 고무된 당시 포르투갈 왕 동 마누엘은 인도를 거점으로 하는 동양무역 기지의 설립을 위해 선박 13척, 선원 1,20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원정대를 조직하고 함대의 총지휘권을 뻬드루 알바리스 까브라우에게 부여했다(최영수 2010, 13). 1500년 3월 국왕을 비롯한 포르투갈 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송과 기대 속에 포르투갈을 떠난 까브라우 함대는 같은 해 4월 22일 지금의 브라질 바이아주 뽀루뚜 쎄구루에 도착했다. 그 후 5월 2일 닻을 올리고 다시 인도를 향해 떠난 5월 2일까지 10일 동안 미사를 올리고 주변 지역을 탐사하면서 해안에 머물렀다. 궁정 서기(書記) 뻬루 바스 지 까미냐는 동 마누엘 왕에게 새로 발견한 땅의 자연과 동식물 그리고 원주민들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서구의 시각으로 볼 때 브라질의 '출생증명서'인 동시에 브라질 문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글, 〈동 마누엘 왕에게 올리는 상서(上書)〉[2] (Caminha, Alves Filho 재

2) 까미냐의 서한 원본은 현재 리스본의 또흐 드 똥부(Torre de Tombo)에 소장돼 있다. 포어판 첫 인쇄본은 1773년에 나왔고 1821년에는 불어판으로도 출판되었다. 여기에서 인용한 까미냐의 서한 내용은 Alves Filho(1999) 판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인용, 15)에서 까미냐는 다음과 같이 브라질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고 있다.

> 전하의 함대장과 다른 선장들도 금번 항해에서 전하의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하께 글로써 올릴 것이지만 이야기 재주가 이들 중 가장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소신 또한 이에 대한 상서를 전하께 최선으로 올리는 책무를 그만 두지 않겠나이다. 전하께서 저의 무지함을 알아주시옵고, 또한 미화(美化)시키거나 추화(醜化)시키지 않도록 소신이 보고 소신에게 보여진 것 이외에는 추호도 여기에 쓰지 않았음을 분명히 믿어주시길 바라옵나이다(Alves Filho 재인용, 7).

위 글에서 까미냐는 직접 눈으로 본 것 이외에 어느 것도 쓰지 않을 것이며 내용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일부러 나쁘게 기술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왕이 임명한 궁정서기로서 오로지 사실만을 왕에게 충실하게 보고해야 하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사실적인 묘사와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그래서인지 까미냐의 글은 대서양을 두 달이라는 오랜 시간의 항해 끝에 뭍을 발견했음에도 담백한 문체로 사실만을 기술하고 있다.

> 4월 21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우리들은 육지를 보았사옵니다. 처음 눈에 띈 것은 아주 높고 둥그스레 큰 산봉우리였사옵니다. 산봉우리 남쪽으로 좀 낮은 다른 산들도 보였고 그 아래에는 나무들이 울창하였사옵니다. 함대장은 이 산을 빠스꼬알산이라고 명명하였고 이 육지에는 '베라 끄루스의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사옵니다(Alves Filho 재인용, 15).

이후부터 〈동 마누엘 왕에게 보내는 상서〉는 〈상서〉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처럼 상서에 나타나는 까미냐의 문체가 담백하고 특히 새로운 육지를 발견하고도 이 사실에 놀라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기록한 이유는 까브라우 함대의 브라질 발견이 흔히 알려진 대로 인도로 가던 길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들어왔던 땅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발견을 둘러싸고 우연설(causalidade)과 의도설 (intencionalidade) 의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우연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서양의 무풍지대를 피하기 위해 아프리카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항해하던 중 해류나 폭풍에 휩쓸려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까브라우 함대의 항해일지와 관련 문서들에서 해류와 폭풍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함대에는 바르똘로메우 지아스를 비롯해 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항해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오랜 기간 축적된 지식으로 항로를 이탈하는 게 어렵고, 무엇보다 당시 유럽인들이 만든 지도에 기록되고 있을 정도로 확실치 않지만 브라질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이다(최영수 2010, 13).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브라질에 도착한 뻬드루 알바리스 까브라우는 자신이 발견한 장소가 육지인지 섬인지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까미냐가 동 마누엘 왕에게 올린 상서 서두 부분에서 베라 끄루스의 '땅 terra'으로 표현한 것을 마지막 결구 부분에 와서는 베라 끄루스 '섬 ilha'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는 점은 브라질 발견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 전하의 손에 입을 맞추나이다. 금일 1500년 5월 1일, 금요일, 전하의 베라 끄루스 섬, 뽀르뚜 쎄구루에서(Alves Filho 재인용, 22).

뽀르뚜 쎄구루 지역에 10일간 머무는 동안 뻬드루 알바리스 까브라우

함장은 부하선원들을 동원해 접안지역의 인근을 최대한 샅샅이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그의 휘하에는 1488년 희망봉을 발견하는 업적을 올린 바 있는 노련한 선장 바르똘로메우 지아스도 있었다. 하지만 브라질에 머물었던 짧은 기간 동안 이들이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발견한 육지가 섬의 일부라는 것이었다. 이런 불확실한 결론 때문에 동 마누엘 왕은 까미냐의 보고를 받은 후, 두 차례에 걸쳐 원정대를 브라질로 보내 새로 발견했다는 땅이 섬인지 육지인지 확인토록 했는데 두번째 원정대장인 공쌀루 꼬엘류가 까브라우가 발견한 곳이 섬이 아닌 규모가 상당히 큰 뭍이라고 보고함에 따라 확신을 갖게 되었다. 동 마누엘 왕은 브라질 발견 사실을 1년여 동안 비밀로 숨겨오다가 스페인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을 서두른 후에야 장인이자 스페인 왕인 페르난도와 장모 이사벨 여왕에게 이 사실을 서한으로 알리면서 까브라우가 '베라끄루스의 섬(땅) Ilha(Terra) de Vera Cruz' 라고 붙였던 이름을 '쌍따끄루스의 땅 Terra de Santa Cruz'으로 바꾸어 불렀다(Alves Filho, 22).[3)]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질'이라는 이름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불려지지 않고 있었다. 사실 유럽인들이 브라질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야자수의 땅'이라는 뜻으로 '삥도라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까브라우가 이름 붙인 '베라끄루스의 땅(섬)'의 '베라끄루스'

3) 본래 이 서한(Carta que El-Rei Nosso Senhor escreveu a El-Rei e à Rainha de Castela, seus padres da Nova da Índia)은 스페인어로 쓰여져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에게 보내진 것이다. 당시 해양발견을 둘러싼 유럽 국가들간의 이해관계는 첨예한 것이어서 가장 번성한 유럽 도시 중 하나인 리스본에는 각국의 스파이들이 활동했다. 특히 해양발견의 개척자였던 포르투갈은 인구로 보나 영토면적에 있어 강대국이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최대 라이벌 스페인을 경계할 수 밖에 없었다. 동 마누엘 왕은 이 서한에서 새로 발견한 땅을 'Nova da Índia 새로 (발견한) 인도'의 일부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장인 장모이자 포르투갈의 해양대국 건설에 최대의 라이벌이기도 했던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이 새로운 발견에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려한 동 마누엘의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

는 '진실의 십자가'라는 뜻이며 그 뒤 동 마누엘 왕이 변경해 부른 '쌍따 끄루스의 땅'의 '쌍따끄루스'는 '성스러운 십자가'라는 뜻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경치에서 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름이 유럽인들에 의해 종교적인 색깔로 수정된 것이다.

이상향을 그리는 유토피아가 꿈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까미냐의 〈상서〉는 문학적 유토피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까미냐의 글에서는 꿈과 상상이 나래를 펼 여지가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까미냐는 〈상서〉의 말미에서 아프리카의 쌍또메 섬에 있던 자신의 사위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동 마누엘 왕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인사 청탁으로서 까미냐의 글이 현실적 이해를 중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서〉는 문학적 디스토피아인 셈이다. 신세계 '브라질'이라는 유토피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글을 보기 위해서 유럽은 몇 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Ⅲ. 『신세계』와 『유토피아』

당시 보고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불확증성[4]은 아이러닉하게도 더욱 큰 호기심과 환상을 구대륙 사람들에게 부추겼다. 동 마누엘 왕이 신대륙 브라질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두 차례의 원

4) 직접 일일히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야 묘사의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히 미지의 신대륙에 관한 정보의 불확증성은 탐험가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할 수 있었다. 스페인 탐험가 프란시스코 데 오렐랴나는 1541년 아마존 강을 항해하는 도중, 머리칼을 길게 늘어뜨리고 활을 쏘면서 일행에게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던 강가의 원주민들을 보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마조나스 부족을 보았노라고 철썩같이 믿었다.

정대에 모두 참가한 바 있는 아메리코 베스푸치는 항해경험을 기록해 둔 일기와 서한들을 모아 1503년, 라틴어로 『신세계 *Mundus Novus*』를 출간했는데, 이 책은 1506년까지 3년 동안 유럽 각국어로 번역돼 22판까지 펴내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에서 베스푸치는 자신이 밟은 땅을 '신세계'라고 명명하는 이유를, "어느 곳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Amado e Figueiredo 2001, 245)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둘러본 곳은 콜럼버스와 까브라우가 이미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신세계』의 폭발적인 인기로 말미암아 유럽인들 사이에 신대륙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은 물론이었다. 독일인 지도제작자 발드세뮐러는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전하는 정보를 토대로 1507년 새로 만든 세계지도에 신대륙을 포함시키면서 이 탐험가의 공로를 기념하여 '아메리카'라고 명명한 사실은 베스푸치의 『신세계』가 끼친 엄청난 영향을 반증하고 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의 핵심 사상인 인본주의는 인간의 능력과 창조적 가능성을 무한대의 공간으로 치켜올려 놓았다.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철학자 죠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가 인간 존엄성에 관한 글에서 말한 것처럼, 위대한 기적 그 자체인 인간은 생물중 가장 행복한 영적존재로서 우주적 질서에 있어 별들과 저세상의 영혼들마저 질투할 정도로 감탄의 대상이 되었다(Holand 1969, 182).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하늘을 찌르는 자긍심으로 무장한 탐험가들에게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었다. 아틀란티스와 에덴동산을 찾는 것조차 그들에겐 시간문제에 불과했던 것이다. 바르똘로메우 지아스, 바스꾸 다 가마, 콜럼버스, 뻬드루 알바리스 까브라우, 아메리코 베스푸치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항해가들의 죽음을 무릅쓴 신대륙 발견은 르네상스 시기의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이상과 자신감 없이는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항해가들은 신대륙 발견

을 통해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즉시 이 사실을 유럽에 서한으로 보고하고 서적으로 발간했다.

발드세뮐러의 세계지도(1507년)의 일부. 아메리코 베스푸치를 그려 놓고 그의 이름을 신대륙에 처음 붙였다. 카리브 해협에서 브라질 해변에 이르는 지도의 형상이 실제 해안선 모양과 상당히 흡사하다.

신세계에 관한 새로운 소식과 보고문학적 서적들을 읽고 창조적으로 고무된 대표적인 지식인은 영국의 토마스 모어였다. 그는 헨리 8세 집권기인 1516년,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유토피아 *Utopia*』(모어 2005)를 출간하였다. 유토피아라는 잘 알려져 있듯이 '이상향 理想鄕'이라는 뜻인데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이 말은 부정의 뜻인 'u'와 장소라는 뜻의 'topia'를 결합시킨 신조어로, 영어로 하자면 'no place', '존재하지 않는 곳', 즉 '어디에도 없는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결국 꿈과 이상의 나라이지만 지구상의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뜻일 것이다. 이 책에서 토마스 모어는 아메리코 베스푸치와 함께 신대륙을

탐험하던 중 유토피아라는 섬에서 5년간 생활했다고 소개하고 있는 포르투갈인 주인공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Raphael Hythlodaeus)라는 인물을 통해 미지의 섬이자 이상의 나라, 유토피아의 사회를 아주 소상히 이야기하고 있다.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의 이름 'Raphael'은 라파엘 천사의 포르투갈식 이름 'Rafael'을 영어식으로 옮겨 적은 것이다. 천사의 이름을 쓴 것은 유토피아의 이상향적 이미지에 걸맞는 동시에 주인공이 바라보는 시선이 천상적이며 절대적이라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주인공의 성, 히슬로다에우스(Hythlodaeus)인데 이 합성어 중 첫 부분 'hythlo'는 는 그리스어로 '잡담, 재잘거림 또는 넌센스'라는 뜻의 'hythlos'에서 가져왔다(모어, 16)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에 두번 째 부분 'daeus'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그리스 어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미는 '교활한 cunning', '불 타는 burning'으로부터 '파괴적인 destructive', '적대적인 hostile', 심지어 '상인 merchant'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5] 하지만 당대 저명한 지식인으로서 토마스 모어가 해양대국 포르투갈의 언어를 쉽게 접했을 것이고 적어도 일인칭 주어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가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여기에 주목한다면 이상향의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을 전해주는 주인공의 성, '히슬로다에우스'는 앞서 말한 'hythlo'에 '나'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eu'를 합성해 만든 말이다. 직역하자면 '나의 잡담', '나의 넌센스'라고 하겠다. 그런데 복수 's'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보자면, 일반시민, 법률가, 정치인, 성직자를 두루 거치는 동안 많은 경험을 하면서 생각해온 '여러 명의 나, 토마스 모어가 현실과 이상향에 관해 말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다. 결국 모어는 소설『유토

5) http://www.thomasmorestudies.org/moreana/Moreana110pages33.pdf

피아』에 등장하는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영국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고, 나아가 자신이 꿈꾸어왔던 이상향의 나라를 우회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다.

토마스 모어가 상상력으로 창조해낸 인물,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 이 철학적 인물이 당시 해양개척의 선봉에 있던 포르투갈 사람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를 당시 유럽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베스트셀러, 『신세계』의 작가[6]이자 탐험가, 아메리코 베스푸치와 함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증유의 경험을 한 인물로 설정했다는 것만 봐도 모어가 당시 이베리아 반도국가들이 주도한 해양개척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 베스푸치를 비롯한 많은 탐험가, 신부, 학자들이 발간한 보고문학적 서적들을 분명 흥미있게 읽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까미냐의 서한에서는 확신은 아니지만 금과 은이 브라질 땅에 많이 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나온다.

> 그중 한 명이 마치 거기에 금이 있다는 걸 소신들에게 알려주려는 듯 선장의 목걸이를 바라보고는 육지 쪽을 손으로 가리키다가 다시 목걸이를 가리켰사옵니다. 또한 은촛대를 응시하고는 육지 쪽으로 손을 흔들고 다시 은촛대를 가리키는 게 꼭 그곳에 은이 있다는 걸 말하려는 것 같았사옵니다(Alves Filho 재인용, 16).

식인식습을 갖고 있던 뚜삐낭바 부족에게 붙잡혀 그들에게 먹힐 뻔한 위기를 모면하고 탈출한 후, 이 경험을 책으로 펴낸 한스 스타덴은 브라질 원주민들이 보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관찰한다.

---

6) 아메리코 베스푸치오가 실제로 『신세계 *Mundus Novus*』의 작가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하지만 누가 실제작가인지의 문제와는 달리 베스푸치오가 실제로 쓴 서한문과 항해기록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썼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 그들 사이에는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돈은 알지도 못한다. 그들에게 보물은 새깃털이다. 깃털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이고 입술과 얼굴에 크리스탈 장식이 있으면 더 큰 부자다. 가족마다 먹을 만큼의 만지오까를 갖고 있을 뿐이다(Staden 1978, xxi).

위에서 말한 '보물'의 의미라든가 '부자'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한스 스타덴이 유럽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한 것이지 실제로 원주민들이 깃털이나 크리스탈을 부의 상징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아님을 글의 문맥상 알 수 있다.

베스푸치가 신대륙의 원주민들을 관찰하여 포르투갈 왕에게 보고하는 편지에 나타난 내용에도 있듯이 "깃털이나 뼈를 제외하고는 금이나 은 같은 보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Alves Filho 재인용, 24)[7] 원주민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습관이 토마스 모어가 꿈꿔온 이상적인 세계의 구체적인 표현에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걸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독교적 공산제를 꿈꾸는 모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정의와 행복

---

7) 하지만 베스푸치가 동 마누엘 왕에게 보고한 내용의 요지는 무엇보다 포르투갈이 신세계, 즉 브라질 땅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의 가능성이다. 베스푸치는 브라질에서 무한정으로 존재하는 빠우브라질 나무, 수정과 각종 향료 및 처음 보는 약재들을 보았다고 보고하면서 수 년내에 큰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어찌 보면 원주민들이 보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유럽인들에게 개발이익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본 이유이기도 하다. (Vespúcio, Américo. *Novo Mundo - Cartas de Viagens e Descobertas*. Porto Alegre, L&PM, s/d. *Apud* Alves Filho, Ivan. *op. cit.,* p. 24. "E não é de se admirar que assim subitamente não tivéssemos percebido todo o seu proveito, porque os habitantes dela não estimam coisa alguma, nem ouro, nem prata, ou outras jóias, exceto coisas de plumagens, ou de osso, como se disse, e tenho esperança de que mandando ora examinar esta Sereníssimo Rei, que não haverá de passar muitos anos, que virão a este Reino de Portugal grandíssimo proveito, e renda. Encontramos aqui uma infinidade de pau-brasil e muito bom para carregar quantos navios existam hoje no mar, e sem custo algum e do mesmo modo de Cássia fistulosa. Vimos cristais e uma infinidade de sabores, e odores de especiarias, e drogarias, mas não são conhecidas.")

이다. 그에게 있어 사회정의와 행복은 평등없이 실현될 수 없고, 또한 사유제 사회에서 평등은 유지되기 어렵다. 또한 사유재산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되는 곳에서는 정의와 번영이 실현될 수 없다. 가장 나쁜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는 곳에 정의가 있을 수 없으며 극히 소수가 모든 것을 나누어 갖는 곳에 번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유토피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고안해내 소유에 대한 욕망을 없애는 데 성공한다.

> 그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값은 비싸지 않은 토기 접시로 음식을 먹고 유리컵으로 음료를 마시는 반면, 공회당 홀이나 개인 집에서 사용하는 요강이나 그 밖의 아주 천한 기물들은 모두 금은으로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노예들을 묶는 사슬과 무거운 족쇄 역시 이런 금속으로 만듭니다. (…) 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금은을 경멸의 대상으로 들추어 냅니다(모어, 102).

이처럼 금은 보석이 가치 없는 사회에서는 실제 생활에 유용한 것들만 필요할 뿐이어서 사치가 존재할 수 없는 '자연인'의 사회에 더욱 가깝다. 그런 까닭에 유토피아에 온갖 사치품으로 장식한 채 한껏 뽐내려고 유토피아 섬에 도착한 아네몰리우스 사절단은 어린아이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된다.

> 저 다 큰 촌뜨기 좀 봐, 엄마, 아직도 꼬마같이 진주나 보석을 달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정색하며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애야, 저 사람은 아마 사절님의 어릿광대일 거야(모어, 105).

Ⅳ. 브라질의 재탄생: '낙원의 섬'과 보고문학적 형상화

모어가 유토피아의 지리적 형태를 섬으로 설정한 것, 까브라우가 처음 브라질 땅을 섬으로 착각한 것, 그리고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의 섬들을 보고는 지상낙원을 발견한 듯 기뻐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유럽인들 사이에 알려져 있던 당시 또는 전대의 이상향적 서사물이나 이미지가 이들에게 잠재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치'이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의 이상향적 전통은 지상낙원을 대부분 섬으로 설정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상국가 아틀란티스가 대서양 한복판에 있다고『대화편』에서 적고 있고, 단테 역시『신곡』에서 연옥과 천국을 남반구에 위치한 어느 섬에 있는 것으로 상상 속에 설정하여 묘사한 바 있다.

브라질(Brasil)이란 지명은 '불꽃 brasa'처럼 활활 타오르는 듯한 붉은 빛깔의 나무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 진 '브라질나무(pau-brasil)'에서 유래했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 말이다.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뚜삐과라니어로 '붉은색 나무'라는 뜻의 '이비라삐땅가(ibirapitanga)'로 불리웠다. 유럽인들은 이 나무를 대규모로 베어다가 유럽에서 염료를 채취하여 상당한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아일랜드에서 중세 이전부터 'Brazil', 'Brazir', 'Brazie', 'Brasille', 'Breasail', 'Bresal', 'Brazille', 'Hi-Brasil', 'Hy-Bresal', 'I-Breasal', 'Hybrazil' 등, 수많은 유사 명칭으로 불리우던 상상의 섬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은 유럽의 이상향과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다. 켈트족의 전설에 따르면, 아일랜드(Ireland(Irlanda)) 명칭의 기원이 된 아이어(Eire(Eriu)) 여신의 아들, '브레이절(Brasal)' 왕이 행복과 낙원의 땅인 이 섬에 거주했다고 전해진다. 아일랜드에는 'Brazil', 'Brasil', 'Braisil'

등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다.

영원한 행복을 주는 이상향의 섬, '브라질'에 대한 환상은 여러 영미시인들에게 시적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소재였다. 19세기에 와서도 '브라질 섬'은 여전히 영미 문화권 시인들에게 시적 소재로 사용되었다. 겔웨이의 시 *Hy Brazil*(1872년)의 마지막 연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그리고 난 알았노라 그 고요하고 순수한 빛이
> 하이브라질 해변으로부터 반짝임을,
> 끝까지 인내하는 이들이
> 영원히 안주하게 될 그곳(Catarino 2004, 338).

이 섬의 실재를 믿었던 죤 제이라는 영국인은 1480년 브리스톨 항을 떠나 '축복의 땅', '영원한 행복의 섬'을 찾아 항해를 계속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현재의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령 아소리스 군도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상상되어왔던 브라질 섬 Ilha Brazil은 실제로 달로르토 지토 지도(Mapa de Dalorto Zito(1325년)), 피지가니 지도(Atlas de Pizigani(1367년)), 메디치언 지도(Medicean Portulana(1351년)), 카탈란 지도(Atlas de Catalan(1375년)), 메르카토르 지도(Mapa de Mercator(1595년)), 죠반니 마지니(1597년)을 비롯해서 1800년대까지 유럽에서 제작된 지도에 50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표기되었다.[8)]

8) 영국인들, 특히 아일랜드인들 사이에 '낙원의 섬', '행복의 나라', '축복의 땅'으로 전설처럼 전해오던 '브라질 섬'에 관해서는 Cantarino(2004) 참조.

죠반니 마지니 지도(1597)의 일부. 아일랜드 남서쪽으로 콩알 만한 크기의 쌍둥이 섬이 보인다. 부분 확대한 오른쪽 그림을 보면 '브라질(Brasi)l'이라는 표기가 선명하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브라질이라는 나라 명칭은 흔히 알고 있듯이 '브라질 나무'에서 단독적으로 유래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앞

서 우리는 II장에서 까브라우가 발견한 신세계의 명칭이 처음부터 '브라질'이 아니었고 '베라끄루스의 땅', '베라끄루스의 섬', '쌍따끄루스의 땅' 등, 브라질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견 이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당시 리스본이 유럽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로 각국의 정보들이 교환되는 공간[9]이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인들 사이에 이상향으로서의 '브라질 섬'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동경심이 포르투갈인들 사이에도 당연히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의 브라질 명칭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브라질 나무'의 어원이 되는 'brasa'와 유럽인들의 이상향으로서의 '브라질 섬'의 '브라질'(또는 이와 유사한 음가로 변형되는 수 많은 명칭들을 포함)이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결합된 결과라는 유추 또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섬의 이미지는 충만하고 완전한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유럽의 이상향으로서의 섬은 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져 신성한 가치로 충만한 평온의 공간이었다. 섬이라는 이미지가 인간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 온갖 모순과 부당함이 들끓는 속세와 현실로부터의 도피처다. 도피의 공간은 안식과 평화를 준다. 섬의 이미지가 인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섬이 현실과는 전혀 다른, 꿈과 소망을 담은 이상적인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낭만적 추구의 대상으로서의 섬은 끊임없이 문학적 소재가 되어 왔다. 15, 16세기 유럽인들의 해외영토 개척이 물질적 부와 영혼의 평화를 주는 신세계를 찾아나선다는 의미로서 이상향의 개념과 각별한 관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

9)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대항해시대의 정점을 이루던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번성하는 유럽 도시 중 하나였다. 당시 리스본은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 외교관, 학자, 예술가들이 넘치는 국제 도시이자 포르투갈이 주도하던 해양발견을 둘러싼 정보를 얻고자 각국의 스파이들이 앞다투며 활동하는 곳이기도 했다.

운 땅, 미지의 땅을 찾아나선 이들의 노력은 바로 현실의 고난과 모순이 부재하며 영원한 행복과 삶을 보장하는 지상낙원을 발견하리라는 꿈과 욕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콜럼버스 또한, 고대 그리스와 성경에서 비롯하여 중세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유럽인들의 이상향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지상낙원이 세계의 어느 곳엔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이티 섬에 도착했을 때 콜럼버스는 "이 곳에 도착하자 뭍의 꽃과 나무로부터 향기가 다가왔는데 어찌나 부드럽고 기분 좋은지 그 향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었다(Holanda, 15)."라고 표현한다. 그는 또 쿠바 원주민들에 관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공손하게, 항상 미소지으며 말한다. 남자 여자 할 것없이 어미가 그들을 낳았을 때처럼 모두 벌거벗고 다닌다(Ibid)."라고 묘사하고 있다.

유럽인들이 처음 대면한 신세계 아메리카의 모습은 짙푸른 원시림 속에 맛좋은 과일이 넘쳐나며 인간과 동물이 자연상태 그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늘푸른 봄의 성서속 에덴동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엘리아데는 낙원에 대한 향수를 "인간조건을 초월하여 신적 조건을 되찾고자하는 욕망, 즉 타락 이전 아담의 초인간적 조건에 복귀하고자하는 욕망"(Eliade, 322)이라고 설명한다. 에덴동산이라는 성서적 이상향은 비단 기도서를 비롯한 종교서적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15세기에 제작된 지도에서 에덴동산을 뜻하는 표상이나 그림이 흔히 지도의 좌측이나 우측이 아닌 맨 윗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 유럽인들이 세계의 어느 곳엔가 그들이 최고의 이상으로 갈구하는 지상낙원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천체도 제작자이며 추기경이기도 했던 삐에르 데일리는 그의 저서 『이마고 문디 *Ymago Mundi*』에서 '축복의 섬'을 언급하면서 토지는 비옥

하고 기후는 온화하다는 주석을 달고 있다(Holanda, 154). 까미냐 역시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물 등, 브라질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다음과 같이 관찰하여 동 마누엘 왕에게 보고하고 있다.

> 소신들이 보지 못했기에 이 땅에 금이나 은 또는 철 같은 다른 금속이 존재하는 지는 알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땅 자체는 이맘 때의 엥뜨르 도우로 미뉴 지역처럼 선선하고 온화한 아주 좋은 날씨이옵니다. 물은 무한정으로 넘쳐나옵니다. 그러므로 있는 물을 잘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이 땅에서 모든 걸 수확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10].

하이티 해변을 떠나면서 콜럼버스는 "화가들이 그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남자얼굴 형상의 인어를 세 번이나 보았다"(Holanda, 201)고 구체적으로 일기에 적고 있는데 그가 본 이 믿기 힘든 환영은 지상낙원을 발견했다는 다소 격앙된 마음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인들이 상상한 지상낙원의 기후는 "춥지도 덥지도 않아 먹거리나 물건이 쉬이 썩지 않을 정도의 인간이 살기에 쾌적한 날씨"(Holanda, 157)였다. 콜럼버스는 '신세계'를 발견하고는 하늘을 찌르듯 높게 자라있는 짙푸른 나무사이에서 형형색색의 화려한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에 몹

10) 까미냐는 이 서한에서 원정대의 발견이 궁극적으로 포르투갈에게 안겨줄 부의 축적을 언급한 후, "우리의 성스러운 신앙의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톨릭 신앙의 전파가 중요한 소임이라는 것을 동 마누엘 왕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Nela, até agora, não pudemos saber que haja ouro, nem prata, nem coisa alguma de metal ou ferro; nem lho vimos. Porém a terra em si é muito bons ares, assim frios e temperados, como os de Entre Doiro e Minho, porque neste tempo de agora os achávamos como os de lá. Águas são muitas; infindas. E em tal maneira é graciosa que, querendo aproveitar, dar-se-á nela tudo, por bem das águas que tem. Porém o melhor fruto, que dela se pode tirar me parece que será salvar esta gente. E esta deve ser a principal semente que Vossa Alteza em ela deve lançar. (...) acrescentamento da nossa santa fé(Alves Filho 재인용, 22)."

시 고조된 마음에 “잎이 결코 지지않는”(Holanda, 163) 영원한 봄의 낙원을 상상했음이 틀림없다.

먹거리가 풍부한 쾌적한 봄 날씨 속에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틀림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었다. 아메리코 베스푸치는 브라질 원주민들이 장수한다고 바르톨로지에게 보낸 편지에 적고 있다. 그는 직접 알게된 원주민 몇몇을 예로 들면서 이들이 4대에 걸친 자손을 거느리고 있고 대략 132세 정도라고 나이를 추산하고 있다. 베스푸치는 나이를 이렇게 추산하는 이유를 원주민식 계산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나이를 달수로 따지는데 1700개의 돌로 달수를 가리킨 것으로 봐서 일년에 13번의 달이 지고 뜨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나이가 130살 정도로 판단된다고 적고 있다(Holanda, 240). 삐에르 데일리도 “백 살에 죽는 이를 보고 요절했다고 말한다”(Idem)고 당시 유럽인들이 또 다른 지상낙원으로 묘사했던 실론섬 주민들의 장수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프랑스인 캘빈교도 쟝 드 레리 또한, 많은 브라질 원주민들이 100살에서 120살까지 산다고 전하고 있다. 그는 인지오들이 장수한다는 단순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뚜삐남바 부족의 남자들이 “튼튼하고 건장한 체격에다 유럽인들이 걸리는 병을 거의 앓지않는다”(Holanda, 242)고 나름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명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뻬루 지 마갈량이스 강다부는 신대륙의 원주민뿐아니라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포르투갈인들도 장수한다고 전하면서 브라질의 천혜적 자연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유태계 카톨릭 교도로 브라질에 정착한 포르투갈 사람 앙브로지우 페르낭지스 브랑다웅은 『브라질의 위대함에 관한 대화(*Diálogos das Grandezas do Brasil)*』에서 브라질에 정착해 살고 있던 브랑도니우라는

인물은 포르투갈에서 막 옮겨온 아우비누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대부분 토지와 공기가 건강에 좋아 사람들이 쾌적하게 장수를 누리죠. 노인들도 건강이 좋아 회춘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가면 일찍 죽을까봐 두려워 귀국을 꺼린답니다(Gândavos/d 1570?, Holanda 재인용, 252).[11]

브라질에 정착한 유럽인으로서 브랑다웅이 위 저서에서 자신의 이름과 유사한 이름의 '브랑도니우'라는 인물을 등장시켰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저자 본인이 느끼는 바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화의 상대로 등장하는 포르투갈 사람의 이름이 '흰색'이라는 뜻의 '아우비누'라는 사실은 '백인', 즉 유럽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오랜 기간 신대륙 브라질에 살고 있는 저자가 유럽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한 수 가르쳐 준다'는 비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구세계 유럽과 신세계 브라질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랑다웅은 브라질 원주민들이 장수하는 또 다른 이유로 혹독한 전염병의 부재를 들고, "공기가 아주 좋고 하늘이 온화해서 브라질의 모든 해변지역에서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흔히 발생하는 치명적인 흑사병이 발생하지 않는다"(Holanda 재인용, 251)고 말한다. 이와 함께 브랑다웅은 유럽으로 데려간 브라질 원주민들과 관련, "추위와 더위가 그들에게 큰 고통이어서 오래지 않아 수척해지고 대부분

11) 강다부는 그의 다른 저서 『우리가 통상 브라질이라고 부르는 쌍따끄루스 지방의 역사 *História da Província Santa Cruz a que Vulgarmente Chamamos Brasil*』(1597)를 남겼는데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논의한 브라질이라는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을 거듭하면서 현재의 브라질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까브라우의 브라질 발견, 즉 1500년 이전까지 원주민들은 이 땅을 '야자수의 땅'이라는 뜻의 삔도라마(Pindorama)라고 불렀다. 브라질 명칭의 변화 과정에 관해서는 Carvalho(http://shial.colmex.mx)참고.

일찍 죽게 된다"(Holanda 재인용, 245-6)고 덧붙이고 있다.

강다부는 다른 저서 『우리가 통상 브라질이라고 부르는 쌍따끄루스 지방의 역사 *História da Província Santa Cruz a que Vulgarmente Chamamos Brasil*』(1597) 에서 흥미로운 언어학적 관찰을 하고 있다.

> 어떤 어휘들은 암컷들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어휘들은 수컷들만 사용한다. 이들의 언어에는 3개의 알파벳, F, L, R이 부재하는데 이는 놀랄만한 일로 그렇기에 Fé(신앙), Lei(법), Rei(왕)이 없는 것이요, 바로 그렇기에 저울이나 측량도 없이 무질서하게 살아간다.

위에서 강다부는 유럽인은 문명인이요 브라질 원주민은 미개인이라는 편견을 갖고 신세계 브라질 원주민들의 언어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죽하면 남자 여자 대신에 "수컷", "암컷"이라고 했을까.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말의 발음에서 "알파벳 F, L, R 발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 법, 왕이 없는 것"이며 그래서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는 단정 또한 아전인수격의 편협한 논리에 불과하다. 까미냐가 주장한 '신앙의 전파'나 베스푸치와 한스 스타덴이 말한 '원주민들의 보석에 대한 무관심'은 강다부와 같은 논리에서 브라질의 식민과 개발을 합리화시킨다.

이처럼 당시 유럽인들이나 브라질 정착인들의 눈에 비친 '신세계' 브라질은 그토록 오랜 세월에 걸쳐 유럽인들이 갈구해왔던 지상낙원이요, 꽃과 나무의 푸르름이 언제나 가득찬 상춘(常春)의 나라요, 물과 땅 그리고 공기가 좋고 신선한 먹거리가 풍부해 주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축복받은 땅이었던 것이다. 브라질 역사학자 까뻬스뜨라누 지 아브레우가 본국인들을 유혹하는 일종의 "이민 광고"(Bosi, 10)라고 표현했듯이, 16세기 브라질 보고문학 작품들에 나타난 신대륙 브라질에 관한 과장 섞인 정보들은 브라질 식민과 정착을 위해 포르투갈 사람들을 유

혹하는 효과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 보고문학에 표현된 '지상낙원, 브라질'의 이미지는 식민본국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유럽 제국들의 해외영토 확장에 대한 욕구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은 수 세기 동안 스페인, 프랑스, 화란, 영국 등, 당시 해양제국들과 상당 기간 브라질 식민지의 영토주권을 확보하는 전쟁을 치뤄내야 했다.

Ⅴ. 결론

이상으로 우리는 까미냐의 〈상서〉로부터 시작되는 브라질의 탄생이 베스푸치의 『신세계』와 모어의 『유토피아』를 거쳐 16세기 브라질 보고문학을 통해 어떻게 문학적으로 '재탄생'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브라질의 출생증명'이라 할 수 있는 까미냐의 글에서는 포르투갈 왕에게 사실만을 보고해야 한다는 글의 본래 목적 때문에 지극히 현실적인 기록물로서 제한돼 문학적 디스토피아의 특징을 지닌다. 여기에서 브라질 땅을 처음 발견한 까브라우를 비롯한 포르투갈인들은 섬인지 뭍인지 확신을 갖지 못했고 이런 불확실성이 동 마누엘 왕의 원정대 파견에 원인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브라질의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기도 했다. 까미냐의 글의 특징이자 16세기 보고문학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불확증성은 새로운 탐험을 위한 자극제 역할을 했다. 신대륙 발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당시 출간 작품들 중, 특히 베스푸치의 『신세계』는 이상향으로서의 브라질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무한한 상상을 자극하여 당시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영국의 지식인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모어 또한 베스푸치에 영감을 받아 『유토피아』를 저술했다. 마지막으로, 섬이라는 이미지로서 유럽의 이상향이 강다부와

브랑다웅으로 이어지는 16세기 브라질 형성기의 보고문학 속에서 때로는 고조된 감정에서 비롯된 과장으로 때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이른바 축복의 땅 브라질을 발견했다는 확신으로 표현되었고 때로는 선교하고 계몽시켜야 하는 '미개'의 대상으로 형상화되었다. 이처럼 보고문학을 통해 재탄생된 브라질의 '지상낙원' 이미지는 포르투갈에게 식민과 개발을 합리화시켰고 유럽 열강들에게 해외 영토확장을 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참고문헌

Park, Jong Hyun 박종현 편저(2006), *Platon*『플라톤 - 그의 철학과 몇몇 대화편』, Seoul 서울,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출판부.

Choi, Young Soo 최영수(2010), *Brasilsa*『브라질사』, Seoul 서울,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More, Thomas 토마스 모어(2005), Utopia『유토피아』, translated by Na, Jong Il 나종일 역, Seoul 서울, Seu Hae moongib 서해문집.

Alighieri, Dante(1982), *The Divine Comedy of Dante Alighieri,* New York, Bantam Books.

Alves Filho, Ivan (org.)(1999), *Brasil, 500 anos em documentos,* Rio de Janeiro.

Amado, Janaina, e Figueiredo, Luis Carlos(org.)(2001), *Brasil 1500: Quarenta documentos,* Brasília, Editora da Universidade de Brasília; São Paulo, Imprensa Oficial.

Bosi, Alfredo(1980), *História Concisa da Literatura Brasileira,* São Paulo, Cultrix.

Candido, Antônio e Castello, José Aderaldo(1985), *Presença da Literatura Brasileira: História e Antologia das Origens ao Realismo.* São Paulo, Difel.

Cantarino, Geraldo(2004). *Uma Ilha Chamada Brasil: o paraíso irlandês no passado brasileiro,* Rio de Janeiro, Mauad.

Carvalho, José Murilo de. "Brasil, Brazil: sonhos e frustrações" (http://shial.colmex.mx)

Eliade, Mircea (1978), *A History of Religious Ideas,* Vol.1 (trans. Willard R. Tras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Gândavo, Pero de Magalhães(s/d), *Tratado da Terra do Brasil,* Rio de Janeiro.

_____(1576), *História da Província Santa Cruz, a que vulgarmente chamamos Brasil,* In. Amado, Janaina, e Figueiredo, Luis Carlos (org.)(2001). *Op. Cit.*

Holanda, Sérgio Buarque de(1969), *Visão do Paraíso: os motivos edênicos no descobrimento e colonização do Brasil,* 2ed, São Paulo, Companhia Ediora Nacional; Editora da Universidade de São Paulo.

Staden, Hans(1978), *Duas Viagens ao Brasil,* Livro II, Belo Horizonte, Editora Itatiaia; São Paulo, Editora da USP.

논문투고일자: 2012년 11월 25일
심사완료일자: 2012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2월 19일